

# 첨단 융합인재 10년간 8만명 양성... 학과설립 대거완화

첨단 분야 매년 8000명씩 확대 예상  
대학별 인문계열 정원, 융합과 10%  
결손 정원으로 융합학과 신설 가능

대학이 첨단분야 융합학과를 신설하  
거나 증설할 때 적용되는 기준 요건이  
완화되고, 대학별 인문계열 입학정원의  
10%까지 융합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대  
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다.

그동안에는 대학이 공학계열과 다른  
계열이 연합해 융합학과를 만들 경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확보율 기준 등 융합학과 설립 요  
건이 까다로운 공학계열을 기준으로 했  
으나, 앞으로는 대학에 유리한 조건으  
로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이 융합  
해 학과를 설치하거나 증설할 경우 요건  
이 까다로운 공학계열 대신 인문계열 기  
준의 교원확보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융합학과 신설시 신입  
생 단계에서 학과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학생 대상의 학과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총 정원 대비  
융합학과 정원도 10%까지 늘릴 수 있  
도록 하고, 정원 상한선도 대학이 유리  
한 계열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정원의 10%까지 융합학  
과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그 밖의 계열  
은 이보다 많은 비율이 융합학과 정원  
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 자퇴나 퇴학 등 중도이탈로  
발생하는 결손 정원은 그 동안 대학들  
이 편입생으로 뽑도록 했으나, 첨단분  
야 융합학과 개설시 이듬해 신입생 정  
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11월 중 이 같은 내용이 적

용되는 2021학년도 정원 조정계획을 대  
학들로부터 제출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의 첨단 분야 융합학  
과 정원이 매년 8000명 씩, 10년 간 8만  
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수요가 많은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는 학과 신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학문분야나 인문사회  
분야 정원은 축소가 예상돼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학생 수  
감소 등에 대비한 교원 양성 체제 전반  
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의  
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바이오헬스 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 개편 등이 논의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예비소집서 선택과목·시험장 재확인

### 수능 D-2 주의사항

아날로그 시계 이외 전자제품 금지  
4교시 탐구과목 응시 방법 주의해야

14일 시행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  
험(수능)이 이를 앞두고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  
품 등 유의사항을 꼭 기억해둬야 한다.

우선 자신이 수능 시험을 치를 시험  
장에서 진행되는 전날(13일) 예비소집  
일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예비소집  
일에는 수험표를 지급받고, 나눠주는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꼼꼼히 체크  
해둬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  
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  
장을 잘 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 두자.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시  
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  
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이번 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다른 모델  
의 샤프펜슬이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수능 샤프펜슬이 바뀌는 것은 2012학년  
도 이후 8년 만이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  
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  
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11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직원들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으로 배송할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  
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  
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  
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  
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종료된 이후 되  
돌려 받으면 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 가능 시계인 지계 뒷  
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관 지시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  
다.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는 73명의 수험

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  
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147명  
이 불이익을 받는 등 293명이 당해 시험  
무효 처리를 당했다.

4교시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  
목 시험시간에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  
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  
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  
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  
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 세종대 2019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자 모집

세종대학교 취업지원과는 오는 12월  
2일까지 '2019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  
습'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에 맞는 진  
로를 찾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3, 4학년의 재학생(건축학  
전공 4, 5학년)이며,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이상 이수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 학생은 근무시간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며, 성적은 합불(P/NP)로 부

여된다.

실습기간은 올해 12월 23일부터  
2020년 2월 28일의 기간 중 4주 또는 8  
주이며, 근무시간 주 40시간 기준(1일 8  
시간) 4주인 경우 3학점을, 8주인 경우  
6학점을 인정받는다.

참여자 접수는 11월 19일부터 12월 2  
일까지 진행 예정이며, 학생경력개발시  
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  
용은 취업지원처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 '2019 빅데이터 아카데미' 프로젝트 발표회와 수료식이 지난 7일 진행됐다. /국민대

## 국민대-삼성화재-삼성카드 '빅데이터 아카데미' 성황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의 '2019 빅  
데이터 아카데미' 발표회 및 수료식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국민대 경영대학원  
권순범 원장을 비롯한 국민대 교수진과  
삼성화재 최성연 상무를 포함한 삼성  
금융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빅데이터 아카데미는 금융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딥러닝 전문가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  
젝트가 함께 진행되는 삼성 금융사(삼  
성화재, 삼성카드)에 특화된 직무교육  
과정이다.

2016년부터 매년 개설되고 있고,  
2017년부터 국민대 경영대학원 AI빅데  
이터MBA가 위탁교육을 맡아 진행 중  
이다. /한용수 기자

## 비상교육, 베트남 기업에 영어프로그램 수출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은  
베트남 교육기업 'EMA(English Mat  
h Academy)'와 초등 영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MA는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둔  
디지털 학습기반의 유·초등 영어·수학  
전문 교육기관이다.

비상교육은 지난해 8월 EMA에 유아

영어 프로그램 '윙스'(Wings)를 수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체 개발한 에듀  
테크 플랫폼 FEL 4.0에 초등 수준의 영  
어 콘텐츠를 결합한 어학원용 영어 학  
습 프로그램 '엘리프'(ELiF)를 공급하  
기로 했다. 두 건의 계약으로 비상교육  
은 계약 기간 7년 동안 약 60억 원의 확  
정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체 개발 플랫폼에 콘텐츠 결합  
7년동안 약 60억 확정수익 예상

EMA는 올 연말까지 호치민에 6개  
의 학습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베트남 전역에 50여 개의 학습센터를  
열어 유·초등 영어 교육 사업을 펼친다  
는 계획이다.

비상교육은 영어 외에도 EMA가 추  
진하는 수학 교육 사업에 협력하는 방  
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중앙대 2019 산학협력 EXPO 대상 등 6개 부문 쾌거

중앙대는 지난 6일~8일까지 일산 K  
INTEX에서 개최된 '2019 산학협력 E  
XPO'에서 대상을 비롯한 6개 부문에  
서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 산학협력 EXPO'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했다. 중  
앙대 산학협력단은 ▲ 창업교육부문 산

학협력기관 대상 ▲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최다득  
표 인기상 ▲ UNICORN 협업체 최우  
수상 ▲ LINC+ 우수사업단상 부문에  
서 수상하며 참여 대학 중 최다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한용수 기자